

朝鮮時代 陵寢寺刹의 立地性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oyal-tomb Temples built during the years of Chosun Dynasty

白蘭影 * · 金龍基 * *

*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大學院

* *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Paek, Nan-Young * · Kim, Yong-Gi *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of SungKyunKwan University

I. 研究의 背景 및 目的

陵寢寺刹이라 함은 王族의 陵을 管理하거나 祭祀를 지내고 陵主의 冥福을 祈願하기 위해 창건된 사찰로 일반적인 개념의 사찰과는 다르게 陵寢과의 상관성 속에서 내용적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그것의 立地와 空間構成에서 나타나는 형식이 일반적인 사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立地의 경우에 있어서는 陵寢寺刹이 陵寢을 수호한다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陵寢寺刹의 立地性은 단순한 종교공간의 立地性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本 研究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전개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찰과는 造營의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왕실과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 채 創建 혹은 重創된 陵寢寺刹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立地性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本 研究의 主眼點은 陵寢寺刹의 立地를 物理的 現象뿐만 아니라 時代狀況, 造營者의 意圖 등과 같은 非物理的 現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찰의 입지를 단순히 風水地理의 관점 등에서 해석하는 기존의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風水地理의 因子 이외에도 또 다른 특별한 因子가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두었다.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地의 選定

本 研究에서는 古文獻資料를 중심으로 陵·園·墓와 상관성을 가지며 造營된 사찰을 찾아 그 결과를 現代文獻資料를 통해 확인하여 1차적으로 19개소의 연구가능사찰을 선정하였다. 이들 寺刹中 현존하지 않거나, 북한에 존재하거나 혹은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찰을 제외시킨 뒤 최종적으로 正因寺, 奉先寺, 神勒寺, 奉恩寺, 興國寺, 奉陵寺, 報德寺, 黔丹寺, 寶光寺, 奉永寺, 龍珠寺 등 모두 11개소의 研究對象地를 선정하였다.

2. 調查方法

本 研究에서 調査는 文獻調査와 現地調査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文獻調査는 陵寢寺刹의 成立背景 分析 그리고 作用 因子 考察을 위해 古文獻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現地調査는 物理的 現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非物理的 現象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주가 되었다.

3. 分析方法

3-1. 陵寢寺刹 자체의 立地性

陵寢寺刹 자체의 立地性은 漢城과의 相關性, 山과의 相關性, 視覺的 開放性을 중심으로 지형도, 현장조사서 수집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특징적 현상을 찾고, 그 현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3-2. 陵寢寺刹과 陵寢과의 相關性

이 분석은 陵寢寺刹이 창건 시부터 陵과의 관계를 가지며 창건될 것이라는 假說을 토대로 하여 분석된 것으로, 양자 간의 상관성을 두 인자간의 距離, 두 인자가 가진 方向性, 두 인자에 관련되는 主山 및 形局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은 지형도와 현장조사시 수집된 사진 등을 이용하여 平面距離, 方向性, 地形的 形勢 등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3-3. 陵寢寺刹과 周邊 諸 作用因子와의 相關的 立地性

文獻考察을 통하여 발견한 立地決定要因으로 판단되는 주변 요소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作圖를 통해 분석하였다. 分析方法으로 사용된 作圖의 원리는 지형도상에서 일차적으로 文獻考察을 통하여 얻어진 주변의 諸 要素와 연결하여 보고 그 다음에는 作圖된 선 가운데에서 설명력이 있는 선을 발견한 후 마지막으로 그것을 解釋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III. 研究結果

1. 陵寢寺刹의 입지는 地理的으로 漢城과 近距離에 위치하고 있으며, 山과의 相關性을 분석한 결과 주로 山端에 입지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고, 시간적으로는 대부분 閉鎖的인 立地性을 보이고 있었다.

2. 陵寢寺刹은 陵寢과의 相關性을 일차적인 立地決定의 인자로 생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관성을 갖는 인자는 각각의 사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陵寢寺刹의 입지결정은 造營主體의 의도가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陵寢寺刹은 대부분 陵寢과 1km 내외에 입지 함으로써 陵寢寺刹의 立地選定時 陵寢寺刹에 대한 巡行時의 接近性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陵寢寺刹의 입지는 陵과의 상관성을 지향하기 위한 수단으로 陵寢이 가진 方向性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陵寢과 무관하게 사찰의 向이 정해지는 유형은 또 다른 因子와의 상관성이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陵寢寺刹은 대부분이 陵寢의 主山(祖山)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主山과 陵국의 결정에 있어서 陵寢과의 상관성을 指向했다기 보다는 주변환경을 지향하였거나 그 외의 다른 인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陵寢과의 뚜렷한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陵寢寺刹은 陵寢寺刹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상관성을 가지면서 간접적으로 立地가 결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사찰들은 대부분 政治·社會的 배경 속에서 陵主와 造營主體의 의도가 陵寢寺刹이 입지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4. 陵寢寺刹의 입지는 工事類型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重創되거나 廢寺址에 創建된 陵寢寺刹은 대부분 기존의 寺址를 활용한 까닭에 대부분 造營主體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移建 혹은 初創된 사찰은 陵主 및 造營主體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 重創 혹은 廢寺址에 창건된 사찰은 山端에 立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왕의 陵이었으며, 이는 接近性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山腹에 입지한 사찰은 후궁이나 왕의 부친 등의 墓로서 接近性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陵寢과의 거리는 대부분 近 거리에 위치하여 接近性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 形局에 立地하여 陵寢과의 상관성이 고려된 가운데 입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나. 移建 혹은 初創된 사찰은 대부분이 山端에 立地하여 接近性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陵寢과의 상관성은 주로 方向性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距離와 形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동일하지 않은 主산에 立地하여 主산과의 상관성은 크게 작용하지 않은 반면, 주변의 諸 環境要素와의 作圖의 相關性에 의해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사찰들은 政治的 배경과 더불어 陵主와 造營主體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立地가 결정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朝鮮時代 陵寢寺刹이 立地는 陵寢의 立地와 적극적으로 상관된 가운데 그 입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陵主 및 造營主體의 意圖 역시 立地決定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